

흠의 정념과 도덕적 속성

김다솜*

주제분류 윤리학, 형이상학, 존재론

주요어 정념, 도덕적 속성, 관계적 속성, 자연주의, 수반, 사회성, 유용성, 합리성, 공감, 도덕감

요약문

서양철학의 오랜 전통은 도덕판단을 이성판단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18세기의 흠은 도덕판단을 감정판단이면서도 동시에 보편판단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사고는 종래의 이성중심의 도덕관을 해체시키고 새로운 감정중심의 도덕관의 도래를 예고한다. 도덕적 구별은 이성이 아닌 정념에서 유래한다는 흠의 선언은 한편으로는 샤프츠베리와 허치슨 등의 도덕감학과의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의무와 책무와 같은 행위 구속력을 갖는 도덕성의 고유한 특성을 충분히 해명하지 못한 저들의 한계를 뛰어 넘는다. 흠은 관찰과 실험이라는 경험적 탐구 원칙에 입각해서 공감과 도덕감, 유용성과 합리성 등에 반응하는 인간 본성의 자연적 경향성에 내재하는 고유한 원리들의 발견을 통해 감정판단으로서의 도덕판단 및 보편판단이 관계적인 도덕적 속성을 갖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 중앙대학교

1. 정념과 자연주의 윤리학

전통적인 주류 윤리이론이던 이성도덕에서 감정도덕으로서의 전면적인 혁신을 주도한 18세기의 흄은 샤프츠베리나 허치슨과 같은 감정론자(sentimentalist)다. 그리고 흄은 이 감정도덕을 “실험적 추론의 원칙을 철저히 고수하는 경험주의자”로서 탐구하고 해명한다. 이러한 흄의 경험주의가 최종적으로 드러낸 모습은 자연주의 윤리학이다.

윤리적 판단과 관련해서 자연주의가 도덕적 문제를 자연적 사실과 구분되는 하나의 독립적인 사태로 이해하며, 이를 경험적 탐구의 문제로 이해할 때, 우리는 이를 자연주의 윤리학이 부를 수 있다. 그런데 18세기의 이성론자들이 감정론자들에 가했던 가장 큰 비판은 도덕감과 같은 감정에 근거해서는 도덕적 의무가 갖는 구속력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감정도덕론자인 흄은 자연주의 윤리학에 입각해서 저와 같은 이성론자들의 공격을 막아내면서 도덕적 구속력을 갖는 행위가 어떻게 감정적 동기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지를 보여줌으로써 동시대의 감정론자들의 한계를 뛰어 넘는다.

흄은 심리적-감정적 사실과 자연적-물리적 사실을 환원적 관계로 보지 않고 서로 근본적이 차이를 갖는 것으로 본다. 그리고 인간 정신의 심리-감정적 사실과 관련해서 감정적 현상을 자연물리적 사실들에 대한 연구와 동일한 방식으로 해명하려고 시도한다. 흄은 자연주의자로서 자신의 이러한 탐구를 자연철학과 구별되는 도덕철학 혹은 정신철학으로 이해한다.

흄은 다음과 같이 선언하는데, “나는 분명히 외부 물체의 본질과 마찬가지로 정신의 본질도 알 수 없다고 여기기 때문에, 신중하고 정확한 실험, 그리고 상이한 여건과 상황으로부터 유래하는 개별적 실험 결과들에

대한 관찰들을 제외한 다른 방식으로 정신의 능력과 성질에 관한 어떤 개념도 형성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비록 실험을 궁극에까지 추적하여 가장 단순한 극소수의 원인들로부터 모든 결과를 설명함으로써, 할 수 있는 한 우리의 원리가 보편타당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분명히 경험을 넘어설 수 없다. 그리고 인간본성의 가장 근원적인 성질을 발견했다고 주장하는 어떤 가설들이라도 주제넘고 터무니없는 것으로 먼저 거부되어야 한다.”(T, xvii)¹⁾ 이렇게 관찰과 실험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경험적 사실만을 탐구 대상으로 하는 흠의 경험적 자연주의는 그 정신이나 방법에 있어서 경험을 넘어선 어떤 것도 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당시의 연구방법론 수준에서 볼 때 생기는 문제는 관찰 가능한 물리적 현상들과 달리 정신 내부의 현상들과 관계하는 인간정신의 문제들은 재현이나 직접적인 실험적 관찰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객관적 검증이 불가능하다. 더욱이 도덕적 문제들은 단순히 내적 심리 상태에 대한 반성적 지각을 넘어서는 정념과 사회성의 상호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상황은 더욱 복잡해진다. 말하자면 도덕적 주제들과 사건들은 물리적 자연의 그것처럼 다룰 수가 없다.

흠이 자신의 주저인 인간 본성론 즉 ‘인성론’의 서장에서 고백하듯이 인간 본성에 대한 객관적인 접근은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현대의 인지과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연구 방식과 달리 흠은 전적으로 “인간들이 실제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바를 있는 그대로 관찰하며,” “자기 자신의 생각을 들여다보는 내성적 관찰”의 방법에 의존해야 했다.²⁾ 이런 점들에 비추어볼 때, 흠의 자연주의 윤리학은 모든 문제들에 동일한 방법론적 원리를 적용하는 철학적 자연주의가 아니다. 따라서 보편적 물리

1) 흠 저서의 인용은 약어와 함께 본문에 직접 인용한다. 약어와 출처에 대해서는 흠의 저서와 출처에 대한 참고문헌의 표기 참조,

2) 김효명(2001), 96-97.

주의와 환원주의로 귀착 내지는 환원되지도 않는다.

통상의 철학적 자연주의는 감정심리적 사실도 자연물리적 사실로부터 발생하는 현상으로 이해하려고 시도한다. 흄의 도덕적 사실과 속성은 감정심리적 현상과 관계하는 인간의 본성적 사실이면서도, 그것은 자연물리적 사실과 전적으로 구분된다. 그러므로 흄에게는 직접적인 관찰과 실험 가능성에서 차이를 갖는 외부 대상과 관계하면서도 직접경험이 가능한 물리적 사실과 내부 대상으로서 직접경험이 불가능한 심리적 사실은 모두 자연적 사실이면서도 양자는 개념적으로는 전혀 다른 속성을 갖는다.

흄은 감정심리적 사실이 갖는 고유성을 허치슨의 견해를 쫓아서 인간 본성에 내재하는 도덕감과 같은 자연적 정념에서 발견한다.³⁾ 그러나 흄은 타고난 도덕감이나 이타심을 도덕적 시인의 원천으로 본 허치슨과 달리 정념과 도덕의 발생적 측면에 주목하면서 도덕감의 문제를 하나의 확정적인 선천적 감정으로서가 아니라 경험적으로 사회적 환경에 따라서 반응하는 인간 본성의 자연적 경향성과 관련짓는다. 이는 분명 경험주의자이면서 동시에 자연주의자로서 경험적 관찰과 추론에 철저하려는 흄의 면모를 보여준다.

흄은 자연적인 심리적 사실로서 경험을 통해 지각되는 최초의 존재를 정념으로 표현한다. 흄에게 정념은 도덕성의 토대다. 심리적 사실로서 정념은 물리적 사실이 그에 고유한 속성을 갖듯이 특유의 성질을 갖는다. 그러한 성질들 중의 하나가 도덕적 속성이다. 타자와 사회적 영역과 관계하는 흄의 도덕성은 기본적으로 사회적 정념의 영역에 속한다. 근본적으로 어떤 다른 토대 원인으로 환원되지도 정의되지도 않는 정념과 도덕은 그 자체로 인간 본성의 고유한 성격을 규정한다.

현대의 흄주의자들은 이러한 흄의 도덕적 속성의 지위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평가를 시도해 왔는데, 나는 흄의 도덕성 속성이 갖는 근본 성격

3) Hutcheson(1971), 139.

을 관계적 속성으로 이해한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 아래서 정념과 도덕의 문제를 도덕적 수반 관계로서 해명한다. 관계이 글에서 나는 이와 같은 해석의 정당성을 보여주려 할 것이다.

2. 정념과 사회성

흠의 도덕성은 정념과 사회성의 상호관계에서 성립하는 속성을 갖는다. 다시 말해서 정념이 도덕성의 원천이지만, 정의와 같은 도덕적 주제는 단순히 개인적 정념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흠에게 정념은 인간 본성에서 발견되는 더 이상 다른 것으로 환원 불가능한 가장 기본인 심리적 사실이다. 흠은 이 정념을 직접정념과 간접정념으로 구분하는데, 어느 쪽이든 정념의 기본적 성질은 쾌/불쾌의 감각과 관계한다.

흠의 철학의 근본 전제이자 토대적 원리가 되는 것이 인성과 관념이듯이 정념 역시 이에 근거해서 관찰된다. 흠은 자신이 내성적으로 관찰한 정념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즉, “나는 선이나 악, 그리고 고통이나 쾌락으로부터 직접 발생하는 것을 직접정념으로 이해한다. 그리고 간접정념은 동일한 원리들에서 유래하지만 일반적으로 유용한 성질로 간주할 수 있는 다른 성질들과 결부되어 발생한다.”(T, 276) 이에 따르면, 흠이 말하는 정념은 쾌락 및 고통과 관계있는데, 추가적인 혹은 2차 정념, 즉 간접정념은 넓은 의미에서 이런 성질과 유사하면서도 다른 성질에서 발생한다. 그러면서도 흠은 이 다른 성질의 기본 속성은 쾌락이나 고통과 유관한 것임을 강조한다. 이에 나는 직접정념 및 간접정념을 포함한 정념 일반의 근본 특성을 ‘유용한 성질을 띠는 쾌/불쾌의 감각’이라고 부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소 애매한 표현을 포함하고 있지만 흠에 의하면, 이 다른 성질은 직

접정념을 낳는 인상과 관련이 있음은 분명하다, 흠은 “고통이나 쾌락 따위의 직접 인상이 있고, 이 인상이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 등과 관련된 대상에서 발생한다고 가정하면, 그에 따른 정서와 함께 이 인상은 [그 대상과 관련된] 성향이나 혐오를 막을 수 없지만, 인간 정신의 어떤 잠재적 원리와 함께 긍지나 소심, 사랑이나 미움 따위의 새로운 인상을 불러 일으킨다. 이 성향 때문에 우리는 그 대상과 합일되거나 분리되는데, 이 성향은 인상과 관념의 이중관계에서 발생하는 간접정념과 결부되는 한 계속 작용한다.”(T, 438-439)고 진술한다.

흠이 말하는 ‘다른 성질들’은 다양한 간접정념들의 발생을 결정하는 특성 혹은 속성이다. 이에선 동일한 대상의 경우에도 수많은 다양한 성질들이 포함된다. 가령 “상상력, 판단력, 기억력, 기질 등과 같은 정신의 가치가 있는 기질들, 즉 재치, 총명, 학식, 용기, 공정, 성실” 등은 모두 긍지의 (가능한) 원인들이며, 이러한 정념의 원인을 신체까지 확장하면 “아름다움, 강인함, 민첩성, 훌륭한 외모, 품위, 능란한 솜씨” 등도 이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성질들은 “조국, 가족, 아이, 친족, 재산, 집, 정원, 말, 개, 옷” 등에도 적용된다.(T, 279)

흠은 우리의 정신이 갖는 직접정념이든 간접정념이든 정념 일반에서 발견되는 쾌락과 고통을 낳는 이러한 성질들을 많은 곳에서 ‘유용한 성질’로 표현한다. 특히 『도덕원리연구』에서는 이러한 성질과 관련한 특성을 단적으로 유용성이라 부르고, 이를 도덕성의 일반 원리로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인성론』의 『도덕론』에서도 “유용성은 공감을 통한 우리의 도덕적 감성의 원천이다.”(T, 577)고 적시함으로써 이러한 성질이 공감에도 내재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 이처럼 유용성과 공감의 관계를 고려할 때, 정념과 덕에서 발견되는 유용한 성질이 곧 도덕적 속성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정념에서 발견되고 느껴지는 유용성으로서의 도덕적 속성은 그것이 단순히 개인적 정념을 넘어서 그러한 성질을 지각하는 자아의 관념과 결부

된다는 점에서 대부분의 간접정념은 이미 사회적인 것이다. 왜냐하면 흠의 관점에서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며, 따라서 어떤 성질이 도덕적 속성을 지닌다는 것은 사회적 유용성에 대한 지각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흠의 윤리이론에서 도덕성은 정념과 사회적 것과의 관계에서 성립하는 것이며, 반대로 그 결과로서의 도덕적 사실들은 그 성질에 있어서 비록 정념 혹은 간접정념이라 불린다 하더라도 인간이 근본적으로 사회적 존재인 이상 이미 그것은 사회적인 것에 대한 반응이다. 이렇게 흠의 도덕성은 철저히 정념과 사회적 것의 관계에서 수반되는 속성을 갖는다.

유용성과 공감의 관계처럼 흠의 도덕성은 대부분의 개인적 정념들이 보이는 특수한 이해관계를 떠나 일반적 승인 혹은 불승인의 감정을 수반한다. 특히 공감은 비단 나의 이익에 국한되지 않고 타인이나 사회의 이익에까지 관여하는 인간성의 원리이기 때문에 사회적 덕들은 공감 안에서 일어나는 도덕적 시인과 부인의 감정이 구체적으로 반영된 것이다. 그리고 이 사회적 덕들은 자기이익과 같은 개인의 특수한 이해관계를 떠난 사회적 유용성이 반영된 것들이다. 이렇게 정념과 사회성의 상호관계에서 성립하는 도덕적 속성은 공감과 유용한 성질로 구성된다. 따라서 흠에게 공감의 원리와 유용성의 원리는 인간본성에서 발현하는 도덕적 속성들의 지배적 원리라 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고통과 쾌락 혹은 만족과 유쾌함의 감정 원리이기도 한 개인적 유용성으로부터 사회적 유용성으로의 전이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흠은 명료한 자신의 언어로 표현하지 않고 있지만, 나는 그 비밀이 유용성을 포함하고 있는 공감의 원리, 혹은 공감에 내재해 있는 유용성의 성질에 있다”⁴⁾고 이해한다. 이제 이러한 가능한 해석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 볼 것이다. 이는 흠의

4) 김다솜(2018), 213.

도덕성에 대한 여러 해석들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드러날 것이다.

3. 도덕적 속성과 관계적 속성

흄의 도덕성은 덕이 갖는 도덕적 속성에 종속적이다. 그리고 그 덕이 갖는 속성, 즉 도덕적 속성이 곧 성품적 특성이다. 그러므로 도덕판단은 바로 이러한 성질을 지닌 덕에 대한 판단이다. 흄은 도덕판단 즉 도덕적 구별은 “오직 내적 작용과 외부 사물의 관계”(T, 465)에 달려 있다고 한다. 흄이 이렇게 말할 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관계”라는 표현이다. 도덕성이 정념과 사회성의 관계에서 성립한다고 했듯이 흄에게 도덕적 속성은 곧 관계적 속성이다. 정념과 사회성, 혹은 주관과 객관 어느 한쪽만으로는 도덕성이 성립하지 않으며, 따라서 도덕적 속성 또한 귀속되지 않는다.

종래에 있어온 흄의 윤리이론과 도덕적 속성에 대한 객관주의적 해석은 물론 주관주의적 해석조차도 흄의 견해에 적중하지 않는다. 먼저 주관주의적 입장을 취하는 정의주의(emotivism)는 흄의 윤리적 견해를 감정 표현의 정서적 의미만을 갖는다고 주장한다. 도덕적 구별이 정념에서 유래한다는 흄의 주장은 단순히 도덕성의 객관적 실재를 부인하는 주관주의자로 볼 여지가 많다. 또한 감정판단의 대상인 감정을 객관적 실재성을 갖는 대상으로, 즉 덕과 부덕을 하나의 객관적 성질을 갖는 것으로 승인하는 객관주의자라는 주장도 있다.

주관주의적 해석에 따르면, 흄에게 감정판단은 정념으로서 쾌락, 이익, 만족과 같은 개별적 감정과 관계하는 판단이다. 이런 견해들은 대체로 동기적 믿음의 무력함을 강조하는 비인지주의자나 정의주의자 혹은 표현주의자의 지지를 받고 있다. 이들은 흄이 『인성론』에서 도덕적 표현주의

를 옹호하는 강력한 논증, 이른바 ‘동기 논증’(Motivation Argument)을 제시했다고 해석한다.⁵⁾ “흠의 도덕이론에 대한 주관주의적 해석을 취하면서 흠을 도덕적 표현주의자로 부르는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정의주의로 불려온 사람들과 근본입장에서는 같다고 할 수 있다.”⁶⁾ 그런데 감정판단이 감정과 관련한다는 것이 그것이 곧바로 단순한 주관주의로 귀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흠은 인간의 단순한 감정 표현과 관련된 말을 실제로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흠이 들고 있는 실례들은 거의 대부분이 이미 사회적 것들이다. 이 말은 역으로 생각해보면, 우리가 하는 어떤 표현도 이미 사회적 평가를 전제한 표현이라는 것을 함축하며, 나아가 분명 타자의 존재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말하자면, “다른 사람의 개인적 느낌은 내 안에 생기는 나의 개인적 느낌과 다를 수 있으며, 또 다른 느낌의 표현이 서로 모순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런 접근은 동기나 행위 사이에 가정한 연관관계를 설명하는 게 더 수월할 수 있다 해도 개인적 반응의 표명은 또 다른 사람의 행동을 유인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⁷⁾ 합리적 행위와 평가자의 관점에서 단순한 감정적 의견 표현은 그것이 곧바로 행위를 낳는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그와 같은 표현 행위는 자신 이외의 타인에게까지 특정 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실천적인 동기력을 갖는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반면에 객관주의적 해석은 덕과 부덕의 속성을 주관 독립적인 실재로 이해한다. 도덕 실재론의 입장을 취하는 이들 객관주의자들은 “도덕적 차이의 실재란 곧 선과 악, 성품(성격)과 행위 간의 도덕적 차이의 실재를 함축하며, 이러한 해석의 빌미는 서로 다른 성품은 다른 부류의 정감을

5) Joyce(2009), 30.

6) 김다솜(2018), 130 각주 9; Pigden(2009), 30; Ayer(1980), 84-85; Price(1988), 6; Snare(1991); Harman/Thomson (1996), 97.

7) 김다솜(2018), 131.

수반한다는 흄의 언급에서 기인하며, 이로 인해 흄을 객관주의자 혹은 실재론자로 독해하게 만든다.’⁸⁾ 라이트 같은 흄주의자는 같은 맥락에서 흄을 아예 과학적 실재론자로 규정한다.⁹⁾ 반면에 흄은 일관되게 이성은 욕구나 혐오 없이 동기를 부여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듯이 이런 객관적 실재론은 이성적 믿음과 관계한다.(PM2, 111) 그러므로 흄이 말하는 “옳음과 그름의 인상에 접촉”한다는 언급은 “우리 모두가 도덕적 반응을 경험한다는 의미로 이해되어야 하며, 결코 그것들이 우리 감정과는 독립적인 어떤 것에 근거한다고 말하려 했던 것은 아니다.”(PM2, 169-170)

흄에게 도덕적 속성의 뚜렷한 특징은 그것이 관계적 속성이라는 점에 있다. 흄에게 도덕평가는 인지주의와 비인지주의의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다. 인지주의적 관점은 반성인상으로서 정념이 거짓 정념일 수 있는 가능성을 허용하는 것이다. 즉, 착각과 같이 자신의 감정 상태를 오인할 수 있는 가능성과 관계한다. 비인지주의적 관점은 감정판단의 감정 연관성이 수반하는 도덕적 속성이 갖는 주관적 특성이다. 그러나 어느 쪽이든 관계적 속성으로서 흄의 도덕적 속성이 갖는 발생적 지위를 제대로 해명하지 못한다.

사회적 덕목들은 도덕적 가치를 갖는다. 그리고 이에 따른 도덕적 판단들은 개인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도 하나의 행위의 척도로서 승인된다. 즉, 그것은 단순히 개인적 반응이나 주관적 반응이 아니다. 도덕판단들이 감정판단이라고 해서 주관적이거나 개인적인 것은 아니다. 누구나 특정한 시공간적 제약을 넘어서는 지속적인 가치를 지닌 것으로 수용된다는 것은 그것이 객관적 가치를 갖는다는 것을 함축한다. 흄의 도덕판단은 바로 그와 같은 기분에 근거해서서 이루어지는 시인과 부인의 감정이다.¹⁰⁾

8) 김다솜(2018), 134.

9) Wright(1983), 21.

10) Cohon(2008), 126 이하 참조.

정념에 특정한 성품적 특성을 부여하는 덕은 특정 행위를 평가하는 합리적 평가자에게 도덕적 시인이나 부인을 낳는 도덕판단의 대상이다. 그러므로 덕에 관한 지식은 이러한 도덕판단과 관계한다. 따라서 나는 흠에 대한 올바른 독해를 위해서는 “단순히 정서적 반응만이 아닌, 그 반응을 이끌어 내는 것이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그것은 주관적인 것이면서도 어떤 상황과 요소에 의해서 수반되는 객관적인 것과의 관계에 의해서 성립하는 것, 즉 관계주의라고 부르는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¹¹⁾

흠에 의하면, “덕이란 무엇이든 정신의 작용이나 성질은 그것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시인의 감정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또한 부덕은 그 반대이다.”(PM2, 107) 이런 덕과 부덕에 대한 판단은 유용한 성질에 대한 것인데, 어떤 것이 유용한 성질을 갖는 덕들인지를 미리 정해진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것이 덕들 혹은 부덕으로 평가될 것인지는 먼저 결정된 것이 아니며, 오히려 우리가 덕으로 부르게 되는 것들이 유용한 성질을 지니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옳다. 이는 도덕판단은 주관적인 감정적 반응이면서도 어떤 도덕적 대상에 반응할 것인지는 앞서 결정되어 있지 않은 것이므로, 따라서 그것은 주관과 대상의 관계에서 생겨나는 것일 수밖에 없다.

흠은 말하기를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신의 유용한 성질이 그 유용성 때문에 유덕하다는 점을 쉽게 인정할 것이다. 이런 사고방식은 그것을 인정하는데 주저할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아주 자연스럽게, 아주 많은 경우에 발생한다. 이제 이런 사고방식이 일단 용인되므로, 공감의 힘도 필연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덕은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간주된다. 목적을 위한 수단은 목적이 존중되는 한에 있어서 존중될 뿐이다. 그러나 낮은 사람의 행복은 오직 공감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 그

11) 김다솜(2018), 142. 관계주의(relationalism)에 대해서는 김다솜(2018), 21 이하 참조.

러므로 사회나 덕의 소유 당사자에게 유용한 모든 덕을 바라봄으로써 발생하는 찬동의 감정을 우리는 [공감의] 원리에 속하는 것으로 생각해야 한다. 이런 것이 도덕성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형성한다.”(T, 618-9) 이에 따르면, 도덕적 속성은 공감적 반응에 내재하는 유용한 성질과 관련된 것이며, 또한 이에 대한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유용한 성질이 시인의 감정으로서 도덕판단을 감정판단이면서도 보편적인 판단으로 만들어준다. 이것이 곧 흄이 도덕성을 유용성과 공감의 내재적 관계에서 성립하는 유용성의 원리에 근거해서 설명하는 이유이다.

4. 유용성과 합리성

도덕판단은 이성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비록 도덕적 구별은 이성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흄의 단언은 언제나 참이지만 그렇다고 이성이 그와 전혀 무관한 것은 아니다. 일차적으로 우리가 어떤 행위를 선택하기 위해서 그 행위가 실제로 실행되었을 때 나오는 결과를 계산하고, 이에 따라서 행위 하는 것은 이성적 내지는 합리적 판단이다. 그러나 이런 계산의 내용은 이미 어떤 이익 즉 개인적 만족과 관계되어 있으며, 그런 점에서 이성적 판단은 이미 감정적 반응을 전제로 하는 행위라 할 수 있다. 내가 볼 때, 흄이 말하는 이성과 감정의 관계, 그리고 도덕적 구별의 원천이 감정 내지는 정념에 있다는 주장 역시 이러한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도덕은 이성에서 도출되지 않는다는 흄의 언명을 끝이끝대로 받아들이거나 혹은 도덕판단에서 이성을 완전히 제거하려는 시도를 거부해야 한다.”¹²⁾ 그리고 흄의 윤리이론과 관련해서 이성과 감정의 관계에 대한 서로 충돌하기까지 하는 다양한 해석들 역시 이 점을

12) 김다솜(2018), 150.

오해하거나 간과한 데서 기인한다.

흠의 다음과 같은 말에 주목해 보자: “이제 지각들을 두 종류로 분석하면 그것은 인상과 관념이 될 것이며 이러한 구별은 물음을 제기한다. 우리가 도덕에 관한 최근의 탐구들을 가능하게 하면서, 관념이나 인상이라는 수단에 의해서 우리는 덕과 부덕을 구별할 수 있는지 여부를, 그리고 어떤 행위를 비난할만하다거나 ‘칭찬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표명할 수 있는지.”(T, 456) 흠은 여기서 “덕과 부덕의 인식, 덕과 부덕의 발견과 구별”에 대해서 묻고 있다.

흠이 늘 강조하듯이 도덕적 구별 및 인식은 이성 단독으로는 불가능하다.(T, 456-7) 흠은 재차 “그러므로 그 논증의 과정은 우리를 결론으로 이끈다, 즉 덕과 부덕은 관념의 비교나 이성에 의해서는 거의 발견되지 않기에, 그것들이 발생하는 인상이나 감정의 수단에 의한 것임이 틀림없다.”(T, 470)고 결론짓는다. 그런데 도처에서 발견되는 다분히 흠의 이성의 역할에 대한 강조들이 낳는 오해는 이러한 흠의 표현들 역시 그 판단 대상은 이미 감정 즉 이익에 대한 감정적 만족이라는 사실을 간과하기 때문이다.

흠에게 덕과 부덕 혹은 도덕판단은 모두 느낌의 문제다. 도덕판단은 느낌으로서 감정에 의해 이루어지는 시인과 부인의 문제다. “덕 감정을 갖는다는 것은 성격의 고찰로부터 특정 종류의 만족을 느끼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바로 그 느낌(feeling)이 우리의 칭찬과 인정을 구성한다.”(T, 471) 인상에서 유래하는 이러한 느낌과 관련해서 허치슨은 “이러한 감각적 인지 즉 감지(sense)를 정신에 새로운 인상들을 전달하는 정신의 역량으로 정의했다.”¹³⁾ 도덕적 감각 내지는 감정 즉 도덕감 역시 정신의 역량이라 할 수 있다. 외부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느낌이나 감정적 반응을 갖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13) 김다솜(2018), 152; Hutcheson(1971), 4. ‘정념과 정감의 본성과 활동에 관한 소론’ 1절.

만일 누군가의 악덕은 단순히 그가 저지른 어떤 행동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느끼는 감정을 통해서 평가받는 것이지 그 역은 아니다. 즉, “이 행동에 대하여 당신 안에 일어나는 부인의 감정을 느껴야만 한다. 여기에 사실의 문제가 있다. 그러나 그것은 이성이 아닌 느낌의 대상이다. ... 따라서 덕과 부덕은 소리, 색, 뜨거움과 차가움에 비교할 수 있다.”(T, 469) 이러한 비교에 담긴 차이는 결국 어떤 인상이 우리에게 어떤 정념을 불러일으키느냐에 달려 있다. 그리고 그 정념은 어떤 유용한 성질을 포함하며, 그것들 중 덕과 부덕을 구별하는 성질이 도덕적 속성이며, 이에 기초해서 도덕판단이 이루어지게 된다. 따라서 이 점에 주목한다면, 흄에는 유용성의 원리가 곧 도덕성의 원리다.

유용한 성질 내지는 유용성에 반응하는 도덕판단은 그것이 덕과 부덕으로 지각되는 성품적 특성에 대한 판단으로서 이에 관계하는 도덕적 속성은 “성향적 속성”(dispositional property)이라 할 수 있다.¹⁴⁾ 그런데 이런 성향 내지는 속성을 반영하고 있는 성질 자체는 아직 특정한 도덕판단을 낳지 못한다. 왜냐하면 유용성의 원리는 도덕적 속성에 담긴 성향에 관한 판단이지 그 내용에 대한 판단은 아니며, 그 내용은 외적 상황과 소위 사회적 정념의 특성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어떤 덕과 부덕의 내용이 먼저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먼저 결정되어 있는 것은 그저 유용한 성질이라는 것뿐이므로 그 내용은 추후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다. 마치 성실의 덕이 지니는 성품적 특성이 있을 수 있는데, 무엇이 성실인지는 먼저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사후에 정해지는 것이며, 따라서 이는 사회적 여건에 따라 성질의 척도는 바뀔 수 있는 것이다. 내가 도덕적 속성이 관계적 속성이라고 말하는 것도 바로 이 점에 주목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덕과 부덕의 도덕적 구별이 정해지는 정념과 사회성의 관계

14) Cohon(2008), 112.

를 고려할 때, 흠에게 유용성은 기본적으로 사회적 유용성 내지는 공적 유용성을 의미한다. 그런 점에서 또한 이러한 도덕적 정념들은 기본적으로 사회적 덕들 내지는 인위적 덕들이라 불릴 수 있다. 마찬가지로 도덕감과 공감 역시 발생적 관점에서 보자면 유용성의 원리에 따른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공적 유용성의 관점에서 이들 도덕감이나 공감을 설명할 수 있다. 사적 이익과 관계하는 개인적 유용성과 달리 사회적 유용성은 말 그대로 공적 이익 혹은 공공의 이익과 관계하는 공적 유용성의 영역이다. 이에는 단기적인 자기 이익이 아니라 장기적인 자기 이익이 관계한다.

흠에게 도덕판단이 보편판단인 이유 역시 공적 유용성이 장기적으로는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는 판단, 즉 합리성이 그러한 선택의 준거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공적 유용성에 입각해서 장기적으로 자신에게도 이익이 된다는 판단은 이성판단이다. 말하자면 사적 유용성에서 공적 유용성으로의 이행은 그 자체만으로는 이익과 만족에 반응하는 감정을 토대를 두고 있으면서도, 그러한 이행 자체는 이성 즉 합리성의 산물이다. 즉, 공적 유용성은 합리성을 매개로 해서 발전된 이성적 감정 판단의 원리라 할 수 있다. 공감 역시 이렇게 형성된 인간의 2차 감정이다. 따라서 유용성의 원리는 곧 공감의 원리를 수반하는데, 그 매개는 이성 또는 합리성이다.

유용성과 합리성의 관점에서 공감의 발생에 접근하는 것이 자연주의자로서 흠의 경험주의적 탐구 원칙에 부합할 것이다. 그런데 흠은 “공감은 매우 강력한 인간 본성의 원리이다. ... 우리가 도덕에 관해 판단할 때와 마찬가지로 외부 대상을 주시할 대에도 공감은 우리의 심미안에 커다란 영향력을 미친다. 정의, 충성, 순결 그리고 예절 따위의 경우에, 공감은 다른 어떤 원리의 도움을 받지 않고 오직 홀로 작용하는 경우에도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승인의 감정을 낳기에 충분한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는다. ... 공감이 도덕적 구별의 주요 원천임을 의심하지 않을 것

이다.”(T, 6181)라고 말한다. 이에 의하면, 흄은 유용성과 공감을 도덕적 구별의 “주요 원천들”들로 보면서 어떤 것이 더 우선하다고 더 근원적이거나 더 중요하다고 말하지는 않고 있다. 이 또한 인간의 심리적 본성에 관한 경험적 탐구 원칙에 충실한 태도라 할 것이다.

반면에 흄의 진술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 유용성 보다는 공감 이 더 중요하거나 근원적 요소라고 볼 수 있는 언급도 바로 앞의 인용 구절에 연이어 등장한다. 즉, “공감이 공공의 복리에 대한 흥미를 우리에게 유발하는 경우가 아니면, 공공의 복리는 우리와 무관하다. …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신의 유용한 성질이 그 유용성 때문에 유덕하다는 점을 쉽게 인정할 것이다. … 그러나 낮은 사람의 행복은 오직 공감을 통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사회나 덕의 소유 당사자에게 유용한 모든 덕을 바라봄으로써 발생하는 찬동의 감정을 우리는 공감의 원리에 속하는 것으로 생각해야 한다. 이런 것이 도덕성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형성한다.”(T, 618-619) 그러나 또 다른 곳에서는, 특히 ‘도덕원리연구’와 같은 후기의 다른 저술에서는 유용성을 더 근원적인 것으로 보려는 시도도 나타난다. 이런 상황에서 선뜻 두 주요 원천 중에서 어느 하나를 앞세우기는 쉽지 않다.

이와 같은 흄의 진술이 처해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나는 공감 보다 유용성을 좀 더 근원적인 자연적 성향으로 놓았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이 두 원천들 중에서 최소한 공감이 더 근원적 원천일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그럴 수 있다면, 흄은 인간 본성에 하나의 근원적인 도덕적 감정을 배치하는 도덕감정론자들 중의 하나가 될 공산이 클 것이다. 아니면 공감 자체가 유용성에 반응하는 성질을 지닌다고 해야 할 것인데, 이렇게 되면 개인적 혹은 사적 유용성과 공감을 조화시키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를 해결하거나 처리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그렇다면 남은 선택지는 유용성을 좀 더 근원적인 본성적 성향으로 간주하고, 이로부터 공감과 도덕감 등 여타의 주요 도덕적 원천들을 해명

하는 설명하는 방도가 될 것이다. 그런데 이 지점을 넘어서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흠을 발전적으로 해석 내지는 보완하는 일이 될 것이며, 이와 관련한 작업은 하나의 독립적인 탐구를 요구한다.

이들테면 흠은 재산의 소유와 관련해서 정의의 덕과 안정성의 관계에 주목하는데, 이 또한 기본적으로 사회적 유용성과 관계한다. 소유의 안정성은 사회적 유용성을 증대시키며, 특정한 정의의 덕에 대한 시인이나 부인 역시 이러한 유용성에 반응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정의로운 행위나 정책, 성향들에 공감하는 반응 역시 마찬가지이다. 어떤 경우에는 현재 수용되고 있는 정의의 규범들이 사회적 유용성 혹은 최대의 사회적 유용성을 반영한 것이라 하더라도 언제든 개인적 시인과 대치될 수도 있다. 동들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즉, 정의와 덕은 많은 경우에 사회 구성원들 간의 많은 불일치를 노정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은 결과적으로는 유용성과 공감의 과정을 통해서 조정되며, 적어도 이러한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우리의 도덕적 판단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일반적 척도로서의 지위를 갖게 된다.

흠은 “우리는 매 순간 공공의 유용성의 원칙에 호소하면서 다음과 같이 묻는다. 만일 그런 실천들의 확산된다면, 세계는 어떻게 되는가?”(PM2, 34) 또 “도덕의 개념은 모든 인류에 대해 어떤 감정적 공통점을 함축하며, 같은 의견이나 그 의견에 관한 결정에서 동의하는 모든 사람, 혹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같은 대상에 대해 일반적으로 시인하도록 권한다.”(PM, 93) 이와 관련해서 흠은 “비록 정의가 인위적이라고 하더라도, 정의의 도덕성에 대한 느낌은 자연적이다”(T, 619)라고 말한다. 이에 따르면, 사회의 도덕적 규범은 유용성, 특히 공적 유용성에 대한 인간의 감정적 반응의 산물이다. 인간의 도덕적 시인이나 승인 또한 이에 대한 반응에 다름 아니다. 이 경우의 공적 유용성 역시 넓은 의미에서는 모든 정의의 기초에 놓여 있는 이익 내지는 이해관계(interest) 즉 유익한 성질과 같은 유용성에 속한다. 흠은 말하기를 “이해관계는 명백하며, 최초로

사회를 구성할 때 드러난다. 이 모든 원인들은 저어도 인간의 본성이 불변적이 만큼 이 정의의 규칙을 확고부동하고 불변적으로 만든다.”고 하면서 “정의의 규칙들이 근원적 본능에 기초를 두고 있다면, 이 규칙들은 더욱더 안정성을 가질 수 있을까?”(T, 620)라고 묻는다. 그리고 인간의 본성에 대한 흄의 탐구는 여기서 멈추고 있다.

5. 나오는 글

경험주의자이면서 자연주의자인 흄은 인간 본성을 두 측면에서 연구한다. 직접적인 관찰과 실험이 가능한 현상과 그럴 수 없는 현상이 그것이다. 인상과 관념이라는 동일한 원리적 요소에 기초하면서도 전자는 외부의 물리적 자연처럼 어떤 감정적 반응을 동반하지 않는 영역이며, 후자는 이와는 구분되는 감정적 반응을 수반한다. 흄은 후자의 이것을 정념이라고 부른다. 흄은 이 정념의 영역인 심리적-감정적 사실과 중립적인 자연적-물리적 사실을 환원적 관계로 보지 않고 서로 근본적인 차이를 갖는 것으로 본다. 이와 함께 흄은 인간 정신의 심리감정적 사실과 관련해서 감정적 현상을 자연물리적 현상들에 대한 연구와 동일한 방식으로 해명하려고 시도한다. 흄은 자연주의자로서 이러한 인간의 본성에 관한 탐구를 자연철학과 구별되는 도덕철학 혹은 정신철학으로 이해한다. 이렇게 해서 인간의 본성에서 발현하는 자연적인 심리적 경향성이 한편으로는 외부 세계에 대한 지식을 낳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의 감정적 본성에 대한 이해를 가능하게 하는 원천임이 밝혀진다.

흄의 도덕성은 정념과 사회성, 이 두 요소를 축으로 하여 발생하는 관계적 속성으로서의 도덕적 속성에 기초한다. 이 도덕적 속성은 느껴지는 성질로서 그 기본 특성은 유용성이다. 그러므로 정념과 덕에 토대를 두

고 있는 관계적 속성으로서 도덕적 속성은 유용한 성질 즉 유용성에 수반하는 특성을 갖는다. 결국 흠에게는 도덕적 문제는 유용성의 문제에 다름 아니다.

도덕판단을 보편적인 감정판단으로 생각하는 흠은 유용성을 공적 유용성으로 확대하는데, 이러한 이행은 유용성에 반응한 결과로서 공감과 같은 보편적 감정을 통해서 가능하게 된다. 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최대의 공적 유용성이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는 합리성이 준거가 된다. 도덕감이나 공감은 이러한 반성적 판단이 개입한 결과라 할 수 있다. 공감과 도덕감은 한편으로는 이러한 합리성이 인간의 자연적 본성과 경향성이 반영된 결과로서 형성된 감정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의 본성적 경향성이 이러한 합리적 유용성에 반응하는 성질을 갖고 있다는 것을 함축한다. 그 어느 쪽이든 결과적으로 흠에게 정념과 덕에 기초한 도덕판단은 도덕적 속성에 반영된 공적 유용성에 기초한다는 점에서 동시에 공감의 원리에 의존적이다.

참고문헌

- 김다솜 (2018), 「흠의 자연주의 윤리학 - 정념과 덕의 이중수반 관계론」, 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 _____ (2015), 「흠과 칸트 - 공감과 공통감」, 『칸트연구』 제36집, 한국칸트학회.
- 데이비드 흠 (1996), 『정념에 관하여』, 이준호 옮김, 서광사.
- _____ (1998), 『도덕에 관하여』, 이준호 옮김, 서광사.
- 최희봉 (2014), 「마음에 관한 흠의 견해 : 인간학, 상상력 그리고 인지과학」, 『범한철학』, 범한철학회 제72권.
- Cohon, R. (2008), *Hume's morality. Felling and Fabrication*, Oxford University Press.
- _____ (1997), The Common Point of View in Hume's Ethics, in *Philosophy and Phenomenological Research* 57.
- Goldman, Alan H. (1988), *Moral Knowledge*, London & New York: Routledge.
- Harman, G/Thomson, J. J. (1996), *Moral Realism and Moral Objectivity*, Oxford: Blackwell.
- Hume, D., *A Treatise of Human Nature*, edited by David Fate Norton and Mary J. Norton, Vol. 1-2, Oxford University Press, 1964. 한국어 표기 『인성론』.
- _____ (T), *A Treatise of Human Nature*, L. A. Selby-Bigge (e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80. 한국어 표기 『인성론』.
- _____ (PM), *An Enquiry Concerning the Principles of Morals*, ed. Jerome B. Schneewind, Hackett Publishing Company, 1983. 한국어 표기 『도덕원리연구』.
- _____ (PM1), *An Enquiry Concerning the Principles of Morals*, ed. Tom

- L. Beauchamp, *The Clarendon Edition of the Works of David Hume*, Oxford University Press, 1998. 한국어 표기 『도덕원리연구』.
- _____(PM2), *An Enquiry Concerning the Principles of Morals*, ed. Charles W. Hendel, Indianapolis: Bobbs-Merrill, 1957. 한국어 표기 『도덕원리연구』.
- Hutcheson, F. (1971), *Illustrations on the Moral Sense*, ed. Bernard Peach,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 Joyce, R. (2009), Expressivism, Motivation Internalism, and Hume, in Charles R. Pigden (ed.) (2009).
- Korsgaard, Christine M. (1999), The General Point of View: Love and Moral Approval in Hume's Ethics, *Hume Studies* 25.
- Kruse, V. (1939), *Hume's Philosophy in his Principal Work, A Treatise of Human Nature and In his Essays*. Oxford University Press.
- Norton, D. F. (1982), *David Hume: Common-Sense Moralist, Sceptical Metaphysician*,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Nuccetelli, S. / Seay, G. (eds.) (2012), *Ethical Naturalism*,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igden, Charles R. (2009), If Not Non-Cognitivism, Then What?, in Charles R. Pigden (ed.), *Hume on Motivation and Virtue*, Palgrave Macmillan.
- Price, H. (1988), *Facts and the Function of Truth*, Oxford: Blackwell.
- Prinz, Jesse J. (2007), *The Emotional Construction of Moral*, Oxford University Press.
- Russell, P. (1995), *Freedom and Moral Sentiment, Hume's way of naturalizing responsibility*, Oxford University Press.
- Scott, W. R. (1900), *Francis Hutcheson. His Life, Teaching and Position in the History of Philosophy*, Cambridge University Press.

Snare, F. (1991), *Morals, Motivation, and Conven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Stevenson, C. L. (1944), *Ethics and Language*, New Haven.

_____ (1952), The Emotive Meaning of Ethical Terms, Sellers & Hospers (ed.), *Readings in Ethical Theory*, New York.

Swain, C., (1992), *Passionate objectivity*, *Nous*, 26(4).

Hume's Passion and Moral Property

Dasom Kim (Chung-Ang Univ.)

The 18th-century Hume asserts that moral judgment is a emotional and general judgment. Hume's ethical theory is built upon his general theory of human nature and knowledge. This thought of Hume indicated the deconstruction of reason-centred moral viewpoint and the coming of an emotion-centred one.

On the one hand Hume's doctrine that moral distinction is derived from passion, not reason, follows the tradition of moral sense school, on the other hand it surpasses the limit of the school which does not resolve the problem of moral binding with duty and obligation. On the basis of the principle of empirical investigation with observation and experiment Hume show that the generality of moral judgment comes into being from the moral property which is relational property responding to the natural tendency of human nature such as utility, sympathy, and convention

Key words: moral property, relational property, moral judgment, passion, utility, sympathy, moral sense, rationality, the social

김다솜 e-mail: kds-111@daum.net

투 고 일	2018년 07월 18일
심 사 일	2018년 07월 30일
계재확정	2018년 08월 14일